



재/테크/코/너

워렌 버핏이 본 한국 증시와 펀드선택과 환매 요령

외환은행 영업부WMC PB팀장 | 정 연 호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출근길, 한남대교 위에서 바라 보는 남산은 울긋불긋하게 단풍 들어 눈이 부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철 따라 변하는 남산의 절묘한 조화는 우리네 삶의 조화랑 닮은 것 같아 더욱 가슴 저미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계절의 변화, 삶의 새옹지마, 전화위복, 이 모두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소위 재테크라는 판에서도 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깊어가는 10월의 아련함 속에서 정원수에 매달린 모과향기에 취해 옛 추억을 되새기는 동안 국내의 주식시장은 몇 차례 극과 극을 오가는 아찔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단련시켰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중국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에 '버블이야', '곧 꺼질 거야', 하면서 바라만 보는 사이, 주가지수는 저 멀리 도망가 있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남들이 가입한 차이나 펀드의 100%가 넘는 수익률에 남산의 단풍 보듯 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방의 열쇠는 실행'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씩씩해하고만 있는 모습을 여기 저기서 보게 된다.



국내증시가 지난 22일, 월요일 장에서는 미국 발 증시 폭락에 영향 받아 하루 만에 66.29포인트(3.36%)나 급락하면서 코스피지수가 1903,81로 마무리, 1900선을 겨우 턱걸이 하는가 싶더니 이번 월요일(29일)에는 주말에 비해 34.86포인트(1.72%) 상승한 2062.92로 장을 마쳐 보름여만에 사상최고가를 깨뜨리며 딱 1주일 만에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지난 주 2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효과에 이어 미국의 금리 추가 인하 소식 때문일까, 국내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한국 방문은 처음이지만 수년 전부터 한국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한 버핏이 우리나라 증시에 매우 희망적인 얘기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갔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싸게 평가되어 있어서 한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3~4배의 수익을 냈다고도 했다.

또 워렌 버핏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적정하며, 한국경제는 앞으로 10년간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한국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온건하게 싼 시장' 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다른 시장과 비교해도 한국시장은 저 평가 돼 정부가 금융의 성장을 잘 이끌고 있고 개별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력도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버블의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한국경제는 근면한 500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향후 10년간은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식시장은 변화무쌍하며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만큼 순간 순간의 변화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한다면 우리도 모두 투자의 귀재가 되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그야말로 '국민 펀드 시대' 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 국민이 펀드 열풍에 휩싸여 있고 너도 나도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냈다고 좋아들 하며 펀드 수탁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주변을 되 돌아 보라, 나는 어떤가?

혹, 왜 나는 늘 뒷북을 치는지, 내가 가입하면 하락하고 환매하면 상승하는지, 엇박

자 치는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는지...

코스피지수가 10여년 동안 꿈에 그리던, 높이1,638m인 금강산주가를 달성하더니 이후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를 하여 두 달 만인 6월1일, 1,708m인 설악산을 넘고 이제는 1,800고지를 지나 드디어 1,955m인 한라산 마저 정복하고 2,744m 의 백두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처럼 코스피지수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남들 따라 주식에 직접투자 하자니 자신 없는 분들이 펀드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보고자 하지만 막상 어떤 펀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 지가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펀드가입요령과 환매요령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자니 겁이 나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나 해외펀드인 차이나펀드 등에 투자한 옆 사람들을 보니 위험할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 늦었지만 나도 펀드에 투자해볼까 마음은 먹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

가끔 필자에게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또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소개를 받고서 전화를 걸어서 '요즘 펀드투자가 대세라는 데 뭐 좋은 펀드 좀 없나요? 좋은 펀드 하나 골라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필자는 '펀드투자는 그렇게 시작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저를 찾아오셔서 면담을 통해 적절한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하시라' 고 권해드린다.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펀드 수는 어느새 9,000개 정도로 늘어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를 보유한 나라인데, 이 많은 펀드 중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판매사 직원이 권하는 펀드를 그냥 가입하지는 않는지, 고수익 펀드라고 묻지마 투자를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투자성향과 자금 성격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좋은 펀드 선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필자는 평소에 처음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간단한 드링크제 같은 의약 보조품은 가까운 동네 슈퍼나 마트 같은 곳에서 쉽게 살수 있다. 하지만 약을 살 경우에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듯이 펀드도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상품이고 일정한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펀드의 내용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하셔야만 실패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증권사나 은행창구에 가면 투자상품판매에 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펀드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를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FC라고 부르는데 특히 PB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FC를 일반의사에 비유한다면 PB는 전문의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환자가 자신의 아픈 부위를 알고 해당 분야의 전문병원을 찾아 가면 검사에서 치료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듯이 재테크라는 사람이 펀드라는 병에 걸렸다고 비유를 해보면 펀드라는 질병을 잘 치료하는 전문의를 찾아만 가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다. 상호 면담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투자성향별 투자모델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고객 성향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목적, 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2가지 이상 펀드를 비교 추천한다.

선진시장과 이머징시장,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등의 관점에서 자산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펀드가 선택되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① 펀드 유형 및 주요 투자대상, ② 펀드의 특징, ③ 투자기간 및 환매에 관한 사항, ④ 운용사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주고 금리나 주가, 환율 등과 같은 주요 투자 대상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배당 및 투자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반드시 이해를 하도록 해준다.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이 있다는 설명에서 대개 투자자

들은 한번쯤 고민을 하시는데 필자는 이렇게 이해 시켜 준다.

'1년 이상의 충분한 투자기간과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하는 투자인 만큼 내가 투자한 이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시장이 반등하여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매한다면 절대 원금을 손해 볼일이 없다' 라고...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주가지수가 낮을 때 펀드에 가입하고 높을 때 찾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는 믿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상담과 시장상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히 선택을 했다면 일단 목표한 수익률이 달성될 때까지는 믿고 기다려야만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너무 조급해 하다가 손해보고 나오거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환매하는 바람에 큰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좋은 펀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우선 펀드 보수, 즉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다. 펀드에서의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로 구분하는데, 수수료는 환매수수료와 선취수수료처럼 일회성으로 한번 지불하면 끝이지만, 보수는 매일 펀드의 평가금액에서 일정비율을 운용회사가 가져간다. 결국 장기 투자일수록 보수가 무시 못할 액수로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운용원칙을 지키는가 살펴봐야 한다. 배당주, 가치주, 공모주, 성장형 등 펀드마다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고 또한 펀드가 설정될 당시 어떠한 형태로 운용할 것인지, 운용은 대표매니저가 할 것인지 팀 단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계획서가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셋째, 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가격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펀드 또한 가격이 매일 달라진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에 따라 '나의 관심 펀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측정해주는 지표를 잘 살펴봐야 한다.

펀드평가 사이트에 나오는 펀드 성적표를 보면 알파(α), 베타(β) 지표가 나오는데 α 는



펀드매니저의 종목선정 능력을 나타내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펀드라고 할 수 있다.

β 는 펀드의 시장 대비 변동성을 나타내며 ' $\beta=1$ ' 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펀드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고, ' $\beta > 1$ ' 은 주가지수의 등락률보다 펀드수익률의 등락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운용실적이 좋고 오래된 펀드가 좋다. 과거의 운용실적만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랫동안 수익률이 시장평균 대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펀드 설정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펀드가 좋다.

다섯째, 여러 회사에서 판매되는 펀드가 좋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 운용사이며, 펀드를 판매하는 곳은 은행 및 증권사인데 여러 판매회사에서 동시에 판매한다는 펀드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많은 판매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사에서 잘 팔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세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제시하며 앞으로는 더 큰 장이 올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예측 속에서 이미 50%에서 100%가까이 수익이 난 펀드의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할지 좀 더 기다려도 될지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펀드 선택 요령에 이어 펀드 환매요령에 대해서 알아 보자.

지난해에 해외펀드나 리츠펀드가 수십%의 수익을 냈을 때 국내펀드에 가입하셨던 투자자들은 1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했던 펀드 수익률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올해 초 들어 코스피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자 성급한 투자자들은 원금회복수준에서 1차로, 2차로는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에서 환매를 했고 지난 4월 주가가 1500을 넘어서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환매를 했지만 결국 주가지수가 2100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그냥 기다린 투자자들과 비교해 보라, 후회에 또 후회를 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부여 잡고 가슴 쓰러하고 있지 않겠는가?

주식투자에 있어 매매타이밍이 어렵듯이 요즘은 주식투자 이상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이 나는 펀드들로 인해 매매타이밍이 펀드의 선택 다음으로 중요해 졌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던 지, 또는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어 이익시현을 위해서 펀드를 환매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투자시점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여 자신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하지만 요즘 같은 장세에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이 났다면 목표수익률도 일정부분 높여 가면서 투자된 펀드의 일부 환매를 통해 적절히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위험도 줄이고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이 급할 때 여러 개의 펀드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정해져 있는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혜택을 포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펀드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현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펀드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것부터 환매해야 한다. 펀드 가입할 때 수수료를 내는 선취형 펀드가 아닌 후취형펀드 등에는 환매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선불리 환매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환매하게 되면 수익의 70% 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해외펀드와 국내펀드가 똑같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세금이 없는 국내펀드부터 환매하는 게 유리하다. 6월 1일부터 해외펀드(역내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6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펀드를 환매해야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 수 있다.

선취형펀드와 후취형펀드가 동일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경과기간이 길수록 선취



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점도 감안하면 도움이 된다.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에 따라 시행일 전후의 수익구조에 따라 같은 수익률 이라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 대상 계좌의 과표 기준기를 확인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국내펀드와 해외펀드가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환매 전후 환율의 등락에 따라 손에 쥐는 원화의 차이가 있으므로 환율 상승기에 있는 통화와 하락기에 있는 통화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사실 요즘의 펀드 투자자들은 급전이 필요하기보다는 펀드의 종류를 바꿔야 하나 이 정도의 수익에 만족해야 하나, 계속 손실만 나고 있는 펀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은 게 현장에서의 분위기이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너무 올랐다, 더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막무가내로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주가가 가장 낮을 때 샀다가 가장 높을 때 팔 수 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이것은 신의 영역이고 불가능,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증시 격언도 있지 않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되,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고 보유펀드나 투자 자금전체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환매 후 재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들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서 가입한 펀드들의 수익률이 높아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요즘 같은 활황장세에서도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만 보고 있는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다리는 것 보다는 다른 펀드가 수익이 나서 환매를 할 때 과감하게 함께 환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2년 가까이 마음 고생시키고 있는 일본펀드를 환매 후 차이나 펀드와 국내펀드로 갈

아뿔다가 성공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어 좋은 예라 하겠다.

요즘은 개인별로 적어도 3~4개 이상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남들과 달리 비슷한 성격의 펀드만 보유하고 있어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투자지역이 중복되는 브릭스펀드와 차이나펀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 대상이나 운용스타일이 같은 펀드를 운용사가 다르다고 해서 동시에 보유하거나 심지어 같은 운용사의 같은 스타일의 펀드를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환매를 해서 일단 이익을 실현한 다음 투자지역, 투자통화, 펀드 유형, 운용스타일등에 따라 재 배분을 하여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환매를 결정했다면 환매시간도 마지막으로 잘 챙겨야 한다.

펀드 환매는 가능하면 주식시장이 개장 중일 때 신청하는 게 좋다. 개장 중에 환매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장 종료 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날 종가 기준이므로 예측이 불가능.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도 수익률 변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펀드의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해야만 당일의 종가를 환매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시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익일의 종가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경우는 오후 3시 30분이 기준이다.

환매 된 펀드의 돈이 입금되는 날짜도 국내 주식형 펀드는 4영업일, 해외펀드의 경우는 7영업 일이 걸린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다. 🙄